임진왜란의 숨은 영웅, 옥천군수 삼암공 권희인 (2)

삼암정

삼암공(參巖公) 권희인(權希仁, 25세, 별장공파, 1558~1593)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제자이다. 옥천군수로 임명되어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을 모아 전열을 갖춘 삼암공은 영동현감(永同縣監) 한명윤(韓明胤, 1542~1593)이 군량을 얻어 영동 경계에 있는 산 속에서 적을 무찌를 계획이라고 특진관(特進官) 윤선각(尹先覺, 1543~1611)에게 말하자 윤선각은 영동 바로 옆에 있는 옥천군수 용장(勇將) 삼암공으로 하여금 한명윤과 함께 서로 협력하도록 한다. 이에 삼암공은 한명윤과 합동작전을 펼쳐 밤을 이용해 누차 적을 공격하여 영동을 사수한다. 이러한 사실은 삼암공이 1593년 12월 순절한 이후 1595년 2월 6일 동지사(同知事) 이항복(李恒福, 1556~1618)과 특진관 윤선각 등이 선조에게 관찰사의 임명과 군공의 허위 문제 등을 논의할 때 윤선각이 선조에게 보고하며(선조 28년 2월 6일, 기유) 밝혀진다.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김시민이 삼암공을 격문으로 부른 시기는 한명윤과 '영동 사수 작전'이 끝난 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삼암공은 병마절도사 김시민의 부름을 받고 경북 칠곡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인 팔거현(八莒縣)을 경계하는 파절장(把截將)과 경남 함양과 전북 남원의 길목에 위치한 팔량현(八良峴)을 방어하는 비어장(備禦將)을 겸임한다. 김시민은 왜 삼암공을 팔거현과 팔량현 두 곳을 지키는 파수장이라는 중책을 맡긴 걸까.

임진왜란의 주요 격전지의 전쟁 상황도를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 충돌 지점은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한양으로 곧바로 진격하는 노선과 전주와 호남으로 침투하려는 공격노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양으로 진격하는 노선에서 벌어진 전투가 신립장군의 충주 탄금대 전투가 되겠고, 호남으로 침투하기 위한 공격노선은 세 군데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영남에서 호남으로 진입하는 공격노선에 팔거현과 팔량현이 위치한다. 둘째는 충청도 금산지역에서 전라도 완주로 침투하려는 요충지에 이치고개가 자리한다. 셋째는 바다를 통해 호남지역으로 침투하려는 시도이다. 왜냐하면 호남이 곡창지대라는 측면도 있지만 전주는 이씨왕조의 성지이기 때문이다. 전주는 이씨왕조에 있어서 정신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상징성이 큰 지역이다. 지금도 전주에는 조선시대 임금들의 초상화를 봉안한 경기전이 있다.

권율장군의 이치대첩은 일본군이 호남의 곡창지대를 장악하여 보급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도 금산군 진안 대둔산 기슭의 이치고개를 통해 전라북도 완주로 침입하려다 벌어졌던 전투이고, 이 전투는 임진왜란 시 육지에서 최초로 승전보를 울렸던 대첩이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대첩은 남해안 바다를 통해 호남으로 침투하려는 일본군과 싸워 물리친 전투다. 그러나 영남 칠곡에서 성주를 거쳐 무주로 진입하려는 방향과 경남 함양에서 전라북도 남원으로 쳐들어가는 길목인 팔거현과 팔량현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전쟁사에서 아직 밝혀지거나 정리된 내용이 거의 없다.

삼암공을 이처럼 전략적 요충지인 팔거현과 팔량현 두 곳의 파수장으로 임명한 병마절도사 김시민 역시 영남에서 호남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길목을 지켰던 것이다. 얼마 전 팔거산성에서 7세기 삼국 경쟁시대 때 신라의 백제 방어 마지노선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간 등의 유적이 발굴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팔거현은 백제와 신라의 전초기지이자 격전지였다. 팔량관(八良關)은 군사상 전략적 요지로 매우 중요시되었으며 예로부터 전라북도의 남동 산간 지역과 경상남도의 북부 산간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이기도 했다. 또한 고려시대 이성계는 내륙 깊숙이 침투한 왜군 아기발도의 1만 병력을 물리친 황산대첩이 벌어진 곳도 함양과 남원의 중간지점인 운봉이었다. 이성계는 황산대첩으로 변방의 장수에서 일약 고려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된다.

영조 51년(1775) 삼암공의 유사(遺事)를 쓴 풍산(豐山) 김서구(金敍九)는 이 두 곳에 왜적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8개월여인데 그동안 수많은 왜적의 우두머리의 목을 베어 병마절도사의 진영에 올렸는데 군중에는 기록이 없고 사적(事蹟)은 막연하여 상세한 것이 없는 실정이라고 개탄하며 다행히 삼암공의 사촌형 희례(希禮, 1542~1598)의 '당일전첩사절양관사當日戰捷死節兩款事'에 실린 내용이 매우 자세하여 이를 징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1593년(선조 26년) 7월 14일 밤 하늘에서 장마비가 오래도록 내리는데 군졸 변성곤이란 자가 진주에서 와서 말하기를 어제 저녁 삼경(三更: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이 끝나갈 즈음에 독산현(禿山峴)을 지나면서 보니 멀리 1리쯤에서 불빛이 있는 가운데 수천의 왜적이 장작을 태우면서 둘러앉아 총수(銃手)가 시험 발사를 하는데 화약이 비에 젖어 두 번이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자 삼암공은 팔을 치켜들면서 "지금이 바로 습격할 기회다" 하고 뿔나팔을 불어 세모진 철퇴를 든 정예 장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북쪽 뒤편 고개를 넘어 날이 샐 무렵 독산현의 적 진영을 급습한다. 적은 전혀 모르고 자다가 놀라 아우성치며 미처 진열도 갖추지 못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은 일본이 포르투갈에서 수입한 신무기 조총을 듣도 보지도 못한 실정이었고 그 위력 또한 알 리 없었다. 그러나 삼암공은 화약이 비에 젖어 발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때가 바로 습격할 기회라고 말한 것을 보면 조총에 대한 이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용장(勇將) 삼암공은 무게가 수십 근이나 나가는 삼릉철편(三稜鐵鞭)을 휘두르며 앞장서서 성낸 말을 몰아 맨 먼저 돌격하니 사졸이 용기를 사서 일당백이 아닌 사람이 없이 적을 격살하여 거의 전멸시키고 그 우두머리 평소길(平素吉)의 목을 베었다. 은안장(銀鞍裝)과 보도(寶刀)와 탄약, 식량 등 노획한 군수물품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에 사람들은 패전 후 군사가 다시 일어난 후의 전공(戰功)으로는 삼암공이 으뜸이라고 했다.

10월 초4일에 남산의 나무수풀 속에서 적의 총포소리가 갑자기 나더니 성 위에서 성을 지키던 사졸이 탄환을 맞아 쓰러진다. 삼암공은 굳게 지키며 교전하지 말 것을 명한다. 그러나 이미 수천의 적들이 크게 몰아닥쳐 성을 몇 겹으로 포위하고 개미떼처럼 기어오르는데 탄환과 돌이 비오듯 날아왔다. 삼암공은 별장(別將) 변성규(邊星奎)와 천총(千摠) 이응보(李應輔)로 하여금 대오를 나누어 진을 치게 했는데 성규는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도망쳐 버렸다. 삼암공은 노약자는 엎드려 피하라 이르고 정예 병사를 선발하여 성문을 열고 철편을 휘두르며 싸우는데 신출귀몰한 장수가 좌우로 휘둘러 치는 것이 마치 사납게 부는 바람과 불과 같았다. 적은 초목(草木)처럼 바람에 쓰러지며 감히 그 예봉(銳鋒)에 맞서지 못했다. 또한 몰래 기병을 보내 적의 배후로 나가 소굴을 불질러버리게 하니 적은 마침내 어지럽게 흩어져 달아나므로 추격하여 문단평(文丹坪)에 이르러 수급을 베어 노획한 것이 매우 많았다. 적은 자기들끼리 짓밟고 죽은 자들의 주검이 들판을 가득 메웠는데도 멀리 도망쳐 달아나느라 정신이 없었다.

삼암공은 치열한 격전 끝에 일본군이 달아나자 북을 울리고 잠시 갑주를 풀고서 돌아오는 사이에 부상당한 왜군이 풀 속에 잠복해 있다 갑자기 탄환을 발사하니 그 조총탄환이 삼암공의 왼쪽 옆구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말았다. 삼암공은 말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것이 수차인데 왜적의 무리가 둘러싸고 겁박하자 삼암공은 눈을 크게 부릅뜨고 크게 꾸짖으며 또 왜군 10여명의 목을 베어 버렸다. 관아에 돌아와서는 탄환의 독이 크게 번지자 수하의 비장(裨將)에게 명하여 깃발과 북을 가지런히 세우게 하고 뜰 아래로 내려가 북쪽의 임금을 향해 네 번 절하고 "출사미첩신선사出師未捷身先死 군사를 내었으나 이기기도 전에 몸 먼저 죽으니"라는 구절을 읊조리니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마침내 군중(軍中)에서 순절하니 때는 1593년(선조 26년) 12월 3일이었다. 그때 삼암공의 나이 겨우 36세였다.

삼암공이 생사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읊은 이 구절은 두보가 49세에 제갈공명의 사당을 둘러 보다 북벌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내 오장원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던 제갈량의 넋을 위로하며 지은 시 촉상(蜀相)의 일부이다.

촉상(蜀相-촉나라 승상) / 두보杜甫

丞相祠堂何處尋(승상사당하처심)
승상의 사당을 어디에서 찾을까
錦官城外柏森森(금관성외백삼삼)
금관성 밖 잣나무 우거진 곳이라네
映階碧草自春色(영계벽초자춘색)
섬돌에 비친 푸른 풀 절로 봄빛이요
隔葉黃鸝空好音(격엽황리공호음)
나뭇잎 사이의 꾀꼬리 무심히 즐겨 노래한다.
三顧頻煩天下計(삼고빈번천하계)
세 번 다시 찾은 번거로운 일도 천하 위한 계책이요
兩朝開濟老臣心(양조개제로신심)
두 임금 섬겨 나랏일 해나감은 노신의 충성심이라네.
出師未捷身先死(출사미첩신선사)
군사를 내었으나 이기기도 전에 몸 먼저 죽으니
長使英雄淚滿襟(장사영웅루만금)
길이 후대의 영웅들 옷깃에 눈물 가득 채우게 하네.

사내대장부가 위급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출사(出師)했으면 적군을 몽땅 싹 쓸어버려야 하는데 그러나 그 역사적 책무를 다 이루기도 전에, 대장부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아마도 삼암공은 제갈공명을 인생의 롤 모델로 생각한 듯하다. 적과 치열하게 싸우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갈공명을 떠올리며 적군을 몰아내기도 전에 먼저 죽는 것을 한스러워 할 정도였으니 대장부 중의 대장부가 아닐 수 없다. 임진왜란 시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조선군을 몰아붙이며 국토를 유린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체념하며 몸을 숨기고 가족을 돌보며 일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을 즈음, 삼암공은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그 책임을 다했던 것이다.

5촌 조카인 협(協)과 흘(忔) 등이 염습하여 함양의 서쪽 죽두현(竹頭峴)에 임시로 초빈(草殯; 고빈藁殯과 같은 말이며, 매장하지 않고 관을 짚으로 덮는 방식으로 전라남도 서남해안 도서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례 풍습)한 후 표석을 세우고 돌아갔다 이듬해에 돌아와 고향땅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29번지(지난 552호 541번지를 29번지로 정정) 아미산(峨嵋山) 아래로 옮겨 장사를 지냈다.

그런데 삼암공을 장사지낸 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삼암공의 유해를 고향에 안장하고 4년 동안 봉분의 풀은 스스로 말라죽다가 왜적이 모두 물러간 다음에야 한 포기씩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삼암공의 유사(遺事)를 쓴 김서구는 "안동 오미동은 나의 고향인데 부로(父老)들이 내게 산 아래 있는 묘소를 가리키며 '이는 권삼암의 무덤(塚)인데 철갑을 함께 묻은지라 때로 하늘이 흐리고 비가 와서 습하면 쇠북소리(金鼓)와 치닫는 군마(陣馬)의 울음소리가 난다' 하였다"고 술회한다.

삼암공의 백성과 나라를 위한 애국충정과 왜적에 대한 통한의 울분이 하늘을 찌른 것이리라. 삼암공이 나라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대목이다.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은 명나라 황제에게 옥천군수 권희인은 김천일(金千鎰, 1537~1593), 고경명(高敬命, 1533~1592), 조헌(趙憲, 1544~1592), 김시민(金時敏, 1554~1592), 송상현(宋象賢, 1551~1592) 등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싸우며 굽히지 않다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절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서애집)이라고 보고한다. 송강 절철은 삼암공 권희인을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전라, 충청, 경기, 경상 4도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의병장 김천일, 여러 마을에 격문을 보내 6,000여 명의 피끓는 의병을 모아 금산에서 왜적과 싸우다 순절한 의병장 고경명, 금산에서 700명의 의병을 이끌고 끝까지 분전하다 700명 의병과 함께 불꽃처럼 산화한 의병장 조헌, 적 2만여 명이 진주성을 포위하자 불과 3,800여 명의 병력으로 7일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적은 물리쳤으나 이마에 적이 쏜 조총탄환의 상흔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숨진 진주목사 김시민, 동래성에서 왜군을 맞아 결사 항전하다 장렬하게 전사한 동래부사 송상현 등 당대의 내노라하는 의병대장들과 대등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립된 성을 지키거나 적의 보루를 쳐들어가다 몸이 칼날에 문드러져도 욕되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용맹스럽고 의로운 인물들이었다고 보고한다.(선조26년 윤11월 14일, 1593년)

또 선조가 변장(邊將)과 수령 가운데 공적이 현저하여 칭송할 만한 자는 없는가 라고 묻자 좌의정 윤두수는 '권희인도 잘 싸운 사람인데 적탄을 맞아 죽었다'고 보고한다.(선조26년 12월 3일, 1593년)

서애 유성룡의 6세손이자 당대의 학자인 학서((鶴棲) 유태좌(柳台佐, 1763~1837)는 삼암공의 묘갈명에서 "팔척의 항우와 같은 영웅에 강회(江淮: 양자강과 회수)를 보장하는 공으로 시신을 말가죽에 싸서 돌아오는 기풍을 이루니 이 나라의 어진으로 알아줌을 받았네. 하부의 고을 사이에서 우뚝 솟구쳐 일어나 정부에 큰 이름을 아름차게 하였는데 배신(陪臣)을 표충(褒忠)하고 의리를 장려하는 글이 내렸도다. 아미산의 묘역에 바람은 말이 되고, 구름은 깃발이 되었는데 고향에는 사당이 있어 청결한 희생과 향기로운 곡식제물(자성粢盛)을 올리지만 서성(西省: 병조) 삼품관(三品官: 참의)으로야 어찌 보답을 베풀었다 하리오. 천추에 이르도록 곧은 옥돌로 뛰어난 자태(영자英姿)를 씩씩하고 시원스레 나타내리"라 하였다.

1592년 음력 4월 13일 고니시(少西行長)가 이끄는 18,000명의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자 다음날인 4월 14일 정발장군은 부산진성에서 약 1,000명의 사졸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순직한다. 이후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장군이 패전하자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4월 30일 경에는 서울 동대문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일본군은 팔거현과 팔량현을 통해 호남으로 진격하지 못한다. 아마도 이때 삼암공이 일본군을 격퇴하여 호남으로 진입하는 길목을 차단한 사실도 전황 전개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안타까운 사실은 임진왜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발하여 국토를 유린당하고 엄청난 국가적 재난과 백성들의 생명을 앗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또 당시 전쟁 전개에 따라 부대 위치 등 전황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전쟁사적 측면에서 총체적인 정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풍전등화와 같은 누란의 위기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진 삼암공의 그 불멸의 정신은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도 깊이 각인되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이 땅의 역사는 선조들의 고귀한 선혈과 희생의 기반 위에 서 있다. 역사는 현재다.

그러나 아직까지 삼암공에 대한 역사적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손들은 삼암공의 호국정신과 임진왜란 시의 활약상 등의 선양을 위해 가칭 '삼암공 권희인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역사적 인물로서의 삼암공 권희인을 자리매김하도록 앞장서는 것이 후손으로서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충청북도 옥천군 역시 옥천군수를 역임한 삼암공의 넋을 기리고 옥천군수로서 옥천군을 빛낸 삼암공의 위대한 발자취를 계승 발전시키는 기념행사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 매년 삼암공의 업적과 공훈을 재조명하고 선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안동시는 삼암공의 고향이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표방하고 있는 안동시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초개와 같이 온몸을 던진 삼암공의 상무정신과 호국사상 등의 정신문화를 기리고 계승시켜야 하리라. 임진왜란 시 선비의 고장 안동에서 무장으로서 활약한 대표적인 인물이 삼암공이다. 그럼에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579-1(지난 552호의 541번지는 579-1로 정정)에 위치하며 삼암공(參巖公)의 위패를 배향하고 있는 충효사(忠孝祠)와 삼암정(參巖亭)은 안동시 문화재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안동시는 지역 인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역사의 수면 아래에 묻혀 있는 역사적 인물을 발굴하여 정당한 평가와 선양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자료출처: 삼암집參巖集 유사遺事, 삼암공參巖公 묘갈명墓碣銘, 서애전서西厓全書 권3)

편집국장 권행완

일재선생실기(一齋先生實紀)

권갑현 편집위원장

《일재선생실기(一齋先生實紀)》는 원(元)나라 고려삼한벽상삼중대광 도첨의 우정승 예천부원군을 역임한 시호 문탄(文坦) 호 일재(一齋) 권한공(權漢功, 시조후 13세, 복야공파조의 장증손長曾孫)의 실기(實紀)로 2권 1책이다.

제1권은 시(詩)로서 공의 시 24 수와, 당시 제현(諸賢)의 여러 찬화시(贊和詩)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권」은 부록으로서 충선왕이 공에게 보낸 시,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이 지은 만장(挽章)과 여사본전략(麗史本傳略), 권씨가승(權氏家乘), 기년략(紀年略), 유사략遺事略), 여사변무설(麗史辨誣說), 척록(摭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재공의 실기는 처음으로 1800년에 공의 13세손 권제행(權濟行, 시조후 26세) 공이 편집하였는데, 그로부터 90년 뒤인 1890년에 공의 16세손 권주욱(權周郁)·주엽(周曄) 공 형제가 《일재선생일고(一齋先生逸稿)》라는 이름으로 《영가세고(永嘉世稿)》의 「제1권」에 실어 포항 입암정사(立巖精舍)를 통해 간행하였다.

이 《일재선생일고》를 바탕으로 일재공의 21세손 권재규(權載奎, 산청거주山淸居住) 공과 권재춘(權載春, 합천거주陜川居住) 공이 더욱 보완하여 1922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 이 《일재선생실기》이다.

一齋先生實紀卷之一
詩
盧山寺枕碧樓 在安東勝覽作慶東白蓮寺
十載讀書處布衣今再遊長松蔭古道亂石漱
寒流白日山村晚青春洞府幽何時擁千騎一
笑上江樓 晚一作暗千一作萬
酒酣得句書于大同江船牕 勝覽作平壤
南浦○皇慶癸丑
磯邊綠樹春陰薄江上青山暮色多宛在水中

한편 이 실기의 최초 국역본은 1963년에 권병철(權秉哲)이 여주(驪州)에서 간행하였으며, 그 뒤 2003년에 문탄공종중에서 《고려사》, 《고려사절요》, 《남효온집(南孝溫集)》, 《목은집(牧隱集)》 등에서 관련 자료를 더 찾아 붙이고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이에 이 실기에 실린 시 몇 수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공이 젊을 때 10년 동안 글을 읽었던 여산사의 침벽루에 두 번째 찾아와 읊은 것으로 제목은 〈여산사 침벽루(廬山寺枕碧樓)〉이다.

十載讀書處(십재독서처)
10년 동안 글을 읽었던 이곳에
布衣今再遊(포의금재유)
선비 몸으로 두 번째 놀러왔네
長松蔭古道(장송음고도)
큰 소나무 옛길을 뒤덮고 있고
亂石漱寒流(난석수한류)
돌들은 찬 냇물에 씻기며 있네
白日山村晚(백일산촌만)
밝은 해는 산촌에 저물어가고
青春洞府幽(청춘동부유)
푸르른 봄에 마을이 그윽하네
何時擁千騎(하시옹천기)
어느 때 천병만마를 거느리고
一笑上江樓(일소상강루)
웃으며 강가 누대에 올라볼까

여기서 여산사는 안동에 있었던 사찰로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안동 백련사(白蓮寺)로 되어있다.

다음은 원(元)나라 조정으로 돌아가는 가정(稼亭) 이곡(李穀)을 전송하며 지은 시로 제목은 〈送稼亭李仲父穀還朝(송가정이중부곡환조)〉이다.

雪牕雅積十年勤(설창아적십년근)
눈내린 창앞에서 십 년 열심히 공부했으니
戰藝場中易策勳(전예장중이책훈)
문예를 겨루는 장중에서 공을 세우기 쉽네
此去功名如拾芥(차거공명여습개)
이번에 가면 공명이 초개 줍는 것 같으니
有何臺閣不容君(유하대각불용군)
어느 대각인들 그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리

이 시는 《가정선생문집》에 저자가 '정승(政丞) 권한공(權漢功)'이라 되어있으며, 익재 이제현이 지은 「서문(序文)」에 이어 문탄공의 시 뒤에 안축(安軸), 백문보(白文寶), 안축(安輔) 등의 시가 있다.

한편 가정 이곡은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부친이며 이색은 문탄공의 손서(孫壻)이다.

마지막으로 문탄공이 이제현과 함께 중국 강소성(江蘇省)에 있는 감로사의 다경루에 올라 지은 〈與仲思登甘露寺多景樓(여중사등감로사다경루)〉를 소개한다.

北固登臨望閏州(북고등임망윤주)
북고산에 올라가 멀리 윤주를 바라보니
一樽難洗古今愁(일준난세고금수)
한 통 술로는 고금의 시름을 씻기 어렵네
浪奔江勢猶含怒(낭분강세유함노)
내달리는 강의 형세는 아직 성을 머금었고
國破山顔尙帶羞(국파산안상대수)
나라 망했으니 산은 오히려 부끄럼 띠었네
淮海風煙餘古壘(회해풍연여고루)
회수의 바람과 안개는 옛 보루에 남아있고
金焦鐘鼓殷岑樓(금초종고은잠루)
북고산의 종소리는 높은 누각에 우렁차네
憑誰與問興亡事(빙수여문흥망사)
누구에게 흥하고 망하는 일을 물어볼거나
惟有沙鷗近葉舟(유유사구근엽주)
오직 모래밭 갈매기만 거룻배에 다가오네

여기서 중사(仲思)는 이제현의 자(字)이다. 한편 이때는 중국이 1279년[고려 충렬왕 5년]에 원(元)나라에 망한 뒤였다.

《일재선생실기(一齋先生實紀)》와 《영가세고(永嘉世稿)》의 이미지 형태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실기》 번역문은 문탄공종중에 문의하면 구할 수 있다.